

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난 7월 4, 5일 양일간 61개 업체가 참여한 '기업살리GO! 마켓'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사기간 동안 철저하고 촘촘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에도 힘썼다.



#1 '기업살리GO 마켓' 성황리에 마쳐



'고양형 비대면 진로수업 패키지'가 개발돼 6월 말부터 목암중학교를 시작으로 자유학년제 대상 비대면 진로체험이 진행 중이다. '고양형 비대면 진로수업 패키지'는 지난 5월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진로센터, 관내 교사와 지역사회의 체험기관으로 구성된 '고양형 비대면 진로수업 연구회'를 통해 개발·보급됐다.



#2 '고양형 비대면 진로수업 패키지' 개발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일상소식을 나눌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이 있어 '고양실버소식'이 창간됐다. 이번 실버소식지는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소식지에 수록되는 사진과 활자 크기를 확대해 제작했다. 반기별 발행되며 노인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된다.



#3 고양시 실버세대 소식지 '고양실버소식' 창간



지난 7월 10일부터 고양시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는 광명시, 의왕시, 오산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4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형음식점에 대한 QR코드 설치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외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관내 300㎡ 이상 대형음식점 326개소와 목욕장 업소 67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5 대형음식점 전자출입명부 설치 서비스 실시



고양시는 그늘에서 무더위를 피하면서 미술공연을 관람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야외 무더위쉼터인 안심그늘쉼터 50여 곳을 선정했다. 안심그늘쉼터에서는 바둑, 장기, 공연, 버스킹, 건강교실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6 고양시 안심그늘쉼터 50여 곳 선정